

주간 글로벌 철강뉴스(19년 6월 2주)

한국철강협회 조사분석실 (chansong.song@ekosa.or.kr, 02-559-3545)

< Executive Summary >

◆ 중국 마강그룹, 바오우강그룹에 51% 지분 양도

- 중국 마강그룹은 자사 지분의 51%를 바오우강그룹에게 무상 양도하여 자회사로 편입
- 해당 인수합병으로 바오우강그룹은 조강생산 87.1백만톤 규모의 초대형 철강사로 부상
- 한편, 안강그룹이 추가적으로 참여할 경우 120백만톤 규모 철강사 탄생 전망

◆ 유럽 철강업계, 더욱 강력한 세이프가드 조치 촉구

- 당초 유럽 내 철강 수요 증가를 예상해 설정한 연도별 5% 쿼터 증량에 대해 최근의 수요 부진을 언급하며 EC에 강화된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요구
- 현행 연간쿼터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별쿼터를 분기쿼터로 바꿀 것, 잔여쿼터 사용에 제한을 둘 것, 글로벌 쿼터 적용 중인 열연강판에 대해 국가별 분기 쿼터로 개정할 것 등에 대해서도 언급

◆ 라틴아메리카, 철강산업의 탈산업화 우려 재차 표명

- 라틴아메리카철강협회(Alacero)는 '19년 지역경제 부진에 따른 조강생산과 철강소비가 감소하고 있지만 철강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에 의한 철강산업의 탈산업화(deindustrialization) 지속에 대한 우려를 표명

◆ 그 외 주요 뉴스

- A.M 이탈리아, 1,395명 임시해고 단행
- 중국 젠룽(建龙)그룹, '20년 철강 생산능력 50백만톤 목표
-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(SAIC), 일부 철강기업에 대한 생산허가 취소
- 인도 SAIL, Odisha에 두 번째 플랜트 건설 예정
- 중국 철강물류전문위원회(CSLPC), 5월 철강PMI 50.0% 발표